

2024학년도 10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발표자 ○○○입니다. (동영상 제시) 여러분, 여기 영화 속 나무 캐릭터처럼 실제로 식물이 시간을 재고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식물이 시간을 재거나 의사소통과 같은 인지 행동을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동물에 비해 식물은 움직임이 없고 눈이나 입과 같은 분화된 감각 기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식물도 시간을 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식물의 인지 행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식물의 시간 측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시광선 스펙트럼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림 제시) 보시는 그림은 지난 동아리 시간에 배운 가시광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림의 이곳은 약 620~750nm인 적색광 영역이고, 이 적색광 말단부터 약 780nm 영역까지가 원적색광 영역인데요, 식물에는 광수용체인 피토크롬이 있어서 원적색광을 흡수하는 피토크롬의 양에 따라 밤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어려우신가 보네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제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낮에는 밤보다 적색광이 많아 적색광을 흡수한 형태의 피토크롬이 많지만, 저녁부터 밤사이에는 낮보다 원적색광이 많으므로 밤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적색광을 흡수한 피토크롬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이렇게 두 유형의 피토크롬의 비율 차이를 통해 밤의 길이를 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은 의사소통도 하는데요, 리마콩이라는 식물이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표 제시) 세균에 감염된 리마콩의 옆에 있는 건강한 리마콩의 살리실산 비율이 평상시보다 높은 것 보이시죠? 살리실산은 면역을 강화하는 식물 호르몬인데요, 감염된 리마콩이 내뿜은 화학 기체인 살리실산메틸을 인지한 건강한 리마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살리실산을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물은 화학 기체를 내뿜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균 감염과 같은 주변 환경 정보를 다른 식물에게 전달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식물의 인지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관련 누리집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가 식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며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직접 시범을 보이며 청중이 제기한 의문을 해결하고 있다.
- ④ 질문을 통해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⑤ 발표 주제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을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상황 분석]

- 동아리 부원에게 식물의 인지 행동에 대해 소개함.
- 청중은 가시광선에 대해 배운 내용을 기억 못 할 것임. ⑦

[발표의 구성]

- 처음: 청중의 흥미 유발 ⑦
- 중간: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내용 조직
 - └ 시간 측정 ⑧
 - └ 의사소통 ⑨
- 끝: 발표 내용 마무리 ⑩

- ① ⑦: 청중이 가시광선에 대한 학습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⑦: 식물의 인지 행동에 대한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영화 속 나무 캐릭터의 인지 행동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③ ⑧: 식물의 시간 측정을 설명하기 위해 낮과 밤에 따른 두 유형의 피토크롬의 비율 차이를 그래프로 제시해야겠어.
- ④ ⑨: 식물의 의사소통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감염된 리마콩이 생성하는 살리실산메틸의 비율을 도표로 제시해야겠어.
- ⑤ ⑩: 청중이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시해야겠어.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1: 리마콩이 딱정벌레에게 물릴 때도 화학 기체를 방출한다고 알고 있어. 물렸을 때 방출하는 화학 기체도 궁금했는데 알려 주지 않아서 아쉬워.

학생 2: 면역 체계는 인간이나 동물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식물도 자신을 방어하는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구나. 식물이 분비하는 다른 호르몬도 있을까? 나중에 과학 선생님께 여쭤봐야겠어.

학생 3: 발표를 듣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 내가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만지면 움츠러드는 이유도 인지 행동과 관련된 것일 수 있겠네. 내 생각이 맞는지 도서관에 가서 조사해 봐야지.

- ① 학생 1은 발표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기준에 알고 있던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4~7] (가)는 환경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대화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 뒤편에 방치된 연못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잖아. 오늘은 학교 연못을 되살릴 방안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으니 각자 조사한 내용을 말해 볼까?

학생 2: 원래 있던 연못은 학생 휴식 공간 위주로 조성되어서, 연못 생태계는 고려되지 못했더라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서식하던 동식물도 죽고. 그래서 이번에는 생태 연못으로 재구성하면 어떨까 생각했어.

학생 3: 그럼 요즘 인기 많은 비단잉어 같은 물고기를 연못에 풀어 놓는 게 어때? 구경도 하고, 먹이도 주면서 기르면 재밌을 것 같아.

학생 2: 그건 이전이랑 다를 게 없잖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조성하는 생태 연못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 연못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까지 고려해야 해.

학생 1: 우리한테 좋은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

학생 2: 맞아. 뉴스에서 봤는데 생태 연못을 조성했더니 생물의 서식처가 복원되는 효과도 있고, 거기 사는 생물의 종도 다양해졌다고 하더라고.

학생 3: 생태 연못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그런 생태 연못을 조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학생 1: 네 생각에도 학교에 생태 연못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거지? 혹시 주변 학교에 생태 연못을 조성한 사례가 있을까?

학생 2: 응,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근처 ○○ 고등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생태 연못을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

학생 3: 그래? 그 학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

학생 2: 학교 주변 산이나 하천처럼 동식물이 주로 서식하는 공간과의 연결성을 확보했던 게 성공 요인인 것 같아.

학생 3: 연결성? 그게 뭐야?

학생 2: 응, 생태계의 원리 중 하나인데, 생태 환경이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변 생태계를 고려해서 연못을 조성하면 연못이 주변 산과 하천의 연결 지점이 되어서 동물의 서식 범위가 확대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학생 3: 그렇구나. 우리 학교 주변에도 갈대숲이 있잖아. 생태 연못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 그럼 주변 환경만 고려하면 돼?

학생 2: 아니야. 연못의 수심과 바닥 토양의 두께를 달리해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

학생 3: 우리도 갈대숲을 고려해 연못 주변에는 갈대를 심고, 연못 수심을 달리해 다양한 수초로 연못을 조성하자. 부레옥잠 같은 식물도 좋을 것 같아.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번식력이 왕성한 부레옥잠이 헛빛과 물의 흐름을 막아 오히려 연못의 생태계를 해칠 수도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

학생 1: 맞아. 생태 연못이 조성되면 우리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생태 연못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면 더 좋겠다.

학생 3: 그래. 이번에 우리 동아리가 교지에 연재할 차례잖아.

생태 연못을 주제로 기고하자.

학생 1: 나도 좋아. 그럼 내가 글의 초고를 써 올게. 너희들은 초고에 필요한 내용을 더 찾아서 보내 줘. 다음 시간에 초고를 함께 검토하자.

학생 2, 3: 그래. 좋아.

(나)

학교 주변을 산책해 본 학생이라면 학교 뒤편에 조성된 연못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연을 즐기는 휴게 공간으로 조성되었던 연못은 학생들의 휴식도, ‘자연’도 사라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는 학교 연못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조성한 결과이다.

우리가 되살릴 학교 연못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조성되어야 한다. 생태 철학자 네스는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대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생태계와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학교 연못을 생태 연못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생태 연못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생태계의 원리는 먼저 자립성이다. 이는 생태 연못의 생태계가 스스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못 주변에 물이 흐를 수 있는 물길을 만들거나 부레옥잠같이 자정 작용을 하는 식물을 심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결성이다. 생태 연못이 고립되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 주변의 갈대숲과 유사한 환경으로 연못을 조성하면 동식물의 서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끝으로 다양성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연못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 연못의 수심과 바닥 토양의 두께를 달리 조성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 연못은 동식물의 훼손된 서식처를 되살리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돋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생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태 연못의 유지를 위한 학생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 학교라는 작은 공간이 생태 연못으로 자연과 이어질 때, 주변 생태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훼손되었던 자연까지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만을 위한 연못이 아닌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생태 연못이 우리 학교에 조성되길 기대한다.

4.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참여자에게 화제를 제시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 ② 대화 참여자의 발언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 ③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정리하며 화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④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⑤ 대화 참여자가 할 역할을 제시하며 추후 모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학생 2’와 달리 [B]의 ‘학생 3’은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② [A]의 ‘학생 3’과 달리 [B]의 ‘학생 2’는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 ③ [B]의 ‘학생 3’과 달리 [A]의 ‘학생 2’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의 ‘학생 3’과 [B]의 ‘학생 2’는 모두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신뢰성 있는 자료의 인용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 ⑤ [A]의 ‘학생 2’와 [B]의 ‘학생 3’은 모두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문단

- (가)에서 언급된 학교 연못의 문제점을 인간 중심적 관점과 관련지어 제시해야겠어. ①

2문단

-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생태 철학자의 주장을 제시하여 생태 연못 조성의 방향성을 제시해야겠어. ②

3문단

- (가)에서 언급된 부래옥잠의 자정 작용을 생태계의 원리 중 자립성의 사례로 제시해야겠어. ③

- (가)에서 언급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연못의 환경 조성 방법을 생태계의 원리와 연관 지어 제시해야겠어. ④

4문단

-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생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학생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연관 지어 제시해야겠어. ⑤

7. <보기>에 제시된 학생들의 조언에 따라 (나)의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2: 우리가 쓴 글의 제목을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붙여 보자.

학생 3: 그래, 제목에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 ① 생태 연못의 다양한 종류
 - 생태 연못의 회복적 가치
- ② 생태 연못을 조성했을 때의 효용성
 - 생태 연못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 ③ 학교 연못 성공 사례의 나비 효과
 -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연못
- ④ 생태 연못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현황
 - 자연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정검다리
- ⑤ 생태 연못, 생태계의 작은 오케스트라
 - 생태 연못 조성 시 고려할 사항과 생태 연못의 가치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을 답하시오.

[작문 상황]

○○시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글을 지역 신문에 싣고자 함.

[학생의 초고]

최근 우리 지역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된 자전거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가 주차장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주차장 실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방치된 자전거가 주변 인도까지 침범하여 거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먼저, 자전거 소유자의 자전거 폐기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자전거의 폐기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를 번거롭게 여겨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방치된 자전거 수거 기준의 모호함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방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방치된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치된 자전거 수거 후 신속한 처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수거된 자전거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처리 방법도 고철 처리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가 지연되면서 방치된 자전거가 누적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전거 폐기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자전거 폐기 방법을 교육하거나 폐기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중 ‘부품이 불량하거나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수거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는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수거한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도입하면, 누적된 방치 자전거를 여러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보관 장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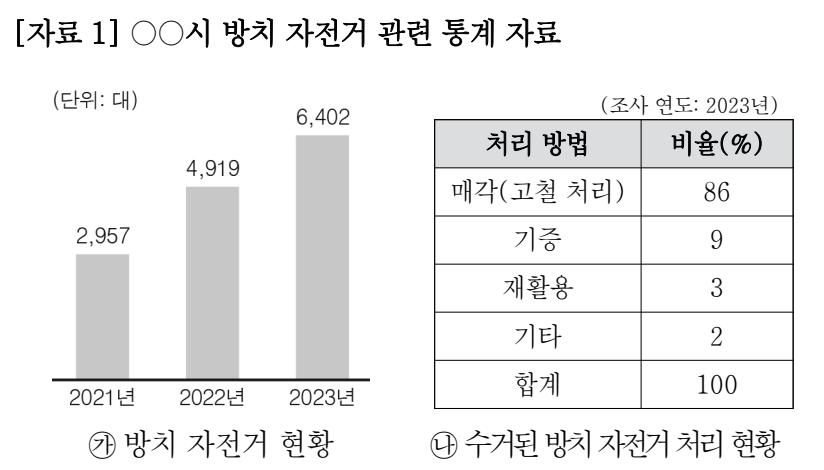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A] 다.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 사용에 대한 시민들이 편의성을 높이고, 깨끗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8.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제재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 ④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9. 다음은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2] 신문 기사

△△시는 방치된 자전거 수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데 총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처리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시에서 수거할 때, 방치된 자전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난감하다.”라고 전했다.

[자료 3] 전문가 의견

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자전거의 올바른 폐기 방법을 홍보하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된 자전거를 지역 예술계와 협업하여 지역 특색 상품으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등 지역 사회의 부가 가치를 고려한 다양한 처리 방법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수거와 처리의 순환이 빨라져 방치된 자전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① [자료 1-Ⓐ]를 활용하여, 방치 자전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방치된 자전거 수거의 기준이 모호하면 수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자전거의 폐기 방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④ [자료 1-Ⓑ]와 [자료 2]를 활용하여, 수거된 방치 자전거를 고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다는 내용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⑤ [자료 1-Ⓑ]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수거된 방치 자전거 처리 방법에서 고철 처리 외의 방법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거한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추가해야겠어.

10. <보기>는 [A]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쳐 쓴 글이다.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처럼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 사용에 대한 시민들이 편의성을 높히고, 자전거 주차장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 ①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는 게 좋겠어.
- ② 글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문단의 시작에 들어갈 표현을 추가하는 게 좋겠어.
- ③ 첫 문장이 해결책과 관련된 주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겠어.
- ④ 세 번째 문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조사를 알맞게 바꾸는 게 좋겠어.
- ⑤ 세 번째 문장에 수식의 범위가 모호한 표현이 있으니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어.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결 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로, 동일한 형태의 연결 어미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갖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가 있다.

우선, ‘-고’는 단어와 단어를 잇는 ⑥보조적 연결 어미로서 본용언에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보조 용언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으며 문법적 의미를 더해 준다. 예를 들어 ‘나는 금강산을 보고 싶다.’에서 ‘-고’는 본용언 ‘보다’에 희망의 의미를 지닌 보조 용언 ‘싶다’를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때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의 ‘-고’ 뒤에는 ‘-서’가 붙을 수 없다.

한편, 이어진문장에서 ‘-고’는 절과 절을 다양한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데, 일반적으로 ⑦동작이나 상태를 나열할 때 쓰인다. 이때 앞뒤 절의 주어는 달라도 되며, ‘-았/었-’, ‘-겠-’ 등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앞뒤 절에 모두 쓰일 수 있다. 또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런데 절과 절을 연결하는 ‘-고’가 ⑧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남을 나타낼 때나, ⑨앞 절의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낼 때가 있다. 이처럼 앞뒤 절의 관계가 종속적인 경우에는 ‘-고’가 동작이나 상태를 대등적으로 나열할 때와 달리 앞뒤 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하며, ‘-고’가 붙은 어간 뒤에 ‘-았/었-’, ‘-겠-’ 등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 없다. 또한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도 바꾸어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결 어미 ‘-고’가 붙는 용언의 의미 자질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고’가 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시간적 순차를 나타낼 때, 앞 절의 동사는 의미상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의미 자질로 표시하면 [+완결성]이 된다. 그리고 ‘-고’가 앞 절의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낼 때는 앞 절의 동사가 완결성뿐만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추가로 지녀야 한다. 이를 의미 자질로 표시하면 [+완결성][+지속성]이 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사진기로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을 찍고 신문사에 제보하였다.’의 ‘찍다’는 어떤 순간적인 모습을 찍는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지 않으므로 [+완결성][-지속성]을 지닌다만, ‘아이가 장난감을 쥐고 흔들었다.’에서 ‘쥐다’는 장난감을 주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므로 [+완결성][+지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두 문장에서 ‘찍고’의 ‘-고’는 시간적 순차 관계를, ‘쥐고’의 ‘-고’는 지속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1. 윗글의 ⑤가 쓰인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가 떠나고 말았다.
- ② 자꾸 따지고 들지 마라.
- ③ 너 아직도 울고 있구나.
- ④ 빨리 숙제부터 하고 나서 놀아라.
- ⑤ 나무가 태풍을 못 견디고 쓰러졌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지호와 성주는 어디에 있니?

영희: ① 지호는 교무실에 갔고, 성주는 보건실에 갔어요.

선생님: 보건실에는 왜?

영희: 성주가 다쳐서 ② 체육 선생님께서 성주를 업고 보건실에 뛰어가셨어요.

선생님: 성주가 선생님께 업힌 채 보건실에 갔다고?

영희: 네. ③ 성주가 공을 차고 넘어졌대요.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선생님: 저런! ④ 보건실에 가서 확인하고,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다.

- ① ④: 앞뒤 절의 주어와 시제 선어말 어미를 고려할 때, ‘갔고’의 ‘-고’는 ④에 해당하겠군.
- ② ④: ‘성주는 보건실에 갔고, 지호는 교무실에 갔어요.’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있겠군.
- ③ ④: ‘업고’의 ‘업다’는 성주를 업는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므로, ‘업고’의 ‘-고’는 ④에 해당하겠군.
- ④ ③: ‘차고’의 ‘차다’는 의미 자질을 [+완결성][-지속성]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차고’의 ‘-고’는 ③에 해당하겠군.
- ⑤ ④: 앞뒤 절의 의미 관계를 고려할 때, ‘확인하고’의 ‘-고’는 ④에 해당하겠군.

13. <보기>의 음운 변동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① 흙장난[흙짱난]
- ② 부엌문[부엉문]
- ③ 벼훑이[벼훑치]

- ① ②, ③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군.
- ② ②, ③에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③ ②, ③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군.
- ④ ②, ③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이군.
- ⑤ ③에서는 새로운 음운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14. <보기>의 [A]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말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문법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품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품사로 사용되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 품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관련된 사례를 발표해 볼까요?

학생: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체언과 수식언으로 사용되는 사례로는 _____ [A] _____ 가 있습니다.

- 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
나도 너만큼은 할 수 있다.
- ② 잘 익은 사과 다섯 개를 샀다.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 ③ 회의실에 아직 아무도 안 왔다.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는 안 된다.
- ④ 그 일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형이 그릇에 담긴 물을 모두 쏟았다.
- ⑤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
이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가 선행 체언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된 경우가 있다. 주격 조사는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이’나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뒤에서는 ‘Ø(영형태)’로 나타났다. 목적격 조사는 자음 뒤에서는 ‘을/을’, 모음 뒤에서는 ‘를/를’로 나타났으며,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을/를’,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을/를’로 나타났다. 관형격 조사는 유정 체언 뒤에서는 ‘의/의’, 무정 체언이나 높임의 유정 체언 뒤에서는 ‘ㅅ’으로 나타났다.



[탐구 자료]

王薦(왕천)의 아비 病(병)이 되어늘 혼 神人(신인)이 날드려 널오덕 네 아드리 孝道(효도)흘씩 하藐 皇帝(황제) 너를 열두 나흘 주시느다 흐더라

[현대어 풀이]

왕천의 아버지가 병이 심하거나 한 신이 나더러 이르기를 네 아들이 효도하므로 하늘의 황제가 너를 열두 살을 주신다 하더라.

- ① ‘王薦(왕천)의’는 유정 체언 뒤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실현되었군.
- ② ‘아비’는 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실현되었군.
- ③ ‘아드리’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 ‘이’가 실현되었군.
- ④ ‘하藐’은 무정 체언 뒤에서 관형격 조사 ‘ㅅ’이 실현되었군.
- ⑤ ‘너를’은 음성 모음 뒤에서 목적격 조사 ‘를’이 실현되었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을 현실 세계를 모방하여 제작한 사물로 ⑦ 규정하고,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예술관은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질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질료’란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를 의미한다. 그리고 ‘형상’은 그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을 의미한다. 그는 예술작품의 질료와 형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자신이 이해한 사물의 형상을 질료에 담아 예술작품으로 재현한다. 그래서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술가가 담은 사물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예술작품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은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진다. 당시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지속되던 현실에 환멸을 느낀 실러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할 방법을 고민했고, 그 해결책으로 예술을 선택했다. 그는 예술가가 아름다움이라는 형상을 예술작품의 질료에 담아 표현하면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하여 인체의 고운 피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대리석이 지닌 표면의 거친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매끄러운 피부의 미적 가치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⑧ 예술작품의 질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20세기 미술 비평가 그린버그는 ⑨ 예술작품의 질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은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예술가가 질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⑩ 주목해야 하며,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령 화가가 캔버스의 평면, 물감의 색채와 질감 등에 집중할 때, 회화라는 예술 장르만이 지닌 고유한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회화에 사용된 질료는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인 ‘미적 매체’가 되는 것이다.

(나)

1968년, 예술가 브로타스가 자신의 아파트에 전시한 ‘현대 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제목의 설치물은 당시 예술계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을 수집한 후 번호를 붙여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전시한 이 설치물을,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 비평가 로저린드 크라우스는 이러한 예술계의 상황을 ‘포스트매체 조건’이라고 ⑪ 명명하며,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했다.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준 매체를 ‘지지체’라 규정했다. 그리고 포스트매체 조건 이전에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지지체라 불렀다. 하지만 이 물질적 지지체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지지체의 범위를 확장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진 예술작품을 기술적 지지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 부르며, 기술적 지지체에서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이야말로 포스트매체 조건의 진정한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규칙 겹침이란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과 그것이 가진 규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그 기술적 지지체만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미술관 독수리부’는 기술적 지지체이다. 왜냐하면 이 설치물은 그림, 사진과 같은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지닌 이미지, 전시 공간과 같은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복합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림의 회화 방식, 사진의 촬영 기법, 번호를 붙여 전시하는 방식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 설치물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설치 예술로서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는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기술적 지지체의 창안은 예술가의 의지나 역량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⑫ 포착해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예술가는 현재 사용되는 지지체를 기준의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예술에서 사용하는 매체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⑬ 역설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다양한 지지체로 새롭게 시도하는 예술가들을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로 구속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것도 예술이다’로 지지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화제에 대한 여러 학자의 관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화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후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후 이와 관련된 학자 사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제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의 ①와 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에는 예술작품은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⑤에는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①에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촉진하는 기능을, ⑤에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③ ①에는 예술가가 예술작품의 질료가 지닌 성질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⑤에는 예술가가 예술작품의 질료가 지닌 성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④ ①에는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⑤에는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⑤ ①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가의 의도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에 있다는 의미가, ⑤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의 순수성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18. (나)의 [지지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포스트매체 조건에서는 사물의 소리도 지지체가 될 수 있다.
- ② 포스트매체 조건에서의 규칙은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말한다.
- ③ 포스트매체 조건에서는 지지체들이 결합해서 또 하나의 지지체로 기능할 수 있다.
- ④ 포스트매체 조건 이전에는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의 규칙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었다.
- ⑤ 포스트매체 조건 이전에 사용되던 지지체는 포스트매체 조건의 기술적 지지체에 사용될 수 있다.

*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19번과 20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자료 1]

화가 A 씨는 현대인들이 희생의 가치를 모른다고 비판하며 캔버스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모성애’라는 제목의 초상화를 그려 전시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입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희생에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표현해 냈다. 평론가들은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 이 그림은 모든 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한다고 평가했다.

[자료 2]

예술가 B 씨는 췄바퀴의 형태를 본떠 캔버스 위에 목탄으로 원을 그린 후 불규칙한 형태로 계속해서 덧칠해 ‘작품 B’를 그리면서, 목탄의 거친 질감이 쌓여 가는 순간순간을 16mm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리고 완성된 목탄화 ‘작품 B’를 미술관 벽에 걸어 두고, 촬영했던 영상들을 ‘작품 B’ 위로 연속해서 비추는 ‘작품 C’라는 전시물을 미술관에 출품했다. 평론가들은 ‘작품 B’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목탄의 질감이 살아 있는 진정한 목탄화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작품 B’와 영상을 결합한 ‘작품 C’에서 현대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라고 평가했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의 ‘캔버스’를 실려는 투명한 매체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로 보겠군.
- ② [자료 1]의 ‘캔버스’와 ‘물감’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려는 모두 예술작품의 질료로 보겠군.
- ③ [자료 1]의 ‘어머니의 희생에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려 모두 형상으로 보겠군.
- ④ [자료 2]의 ‘목탄’을 그린버그는 미적 매체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로 보겠군.
- ⑤ [자료 2]의 ‘캔버스’를 그린버그는 불투명한 매체로, 크라우스는 ‘작품 C’에 활용된 ‘작품 B’를 비물질적인 지지체로 보겠군.

20. 윗글을 읽은 학생이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자료 2]의 ‘작품 B’는 모두, 형상과 질료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라고 보겠군.
- ② 실려는 [자료 2]의 ‘B 씨’보다 [자료 1]의 ‘A 씨’가 감상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더 잘 전달했다고 보겠군.
- ③ 그린버그는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자료 1]의 ‘초상화’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겠군.
- ④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B’는 물질적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됐다고 보겠군.
- ⑤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C’는 기술적 지지체로 규칙 겹침이 나타났다고 보겠군.

21. ㉠~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 ② ㉡: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 ③ ㉢: 사람, 사물, 사건 등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임.
- ④ ㉣: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 ⑤ ㉤: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또는 그런 말.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기사장의 인격이나 기술을 우리 사에서는 믿고 맡기고 있었소. 한 회사라는 것은 그 회사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람을 쓴다는 것은 두말도 할 필요 없겠지요. 김기사는 우리 회사가 환도 후 재건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금년 삼월에 들어 발전기와 제23호 인쇄기의 고장은 우리 회사의 치명적인 타격이었소.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 기계를 다루는 기사장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소. 기사라는 것은 기계의 고장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라고, 아니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직책이라고 회사에서는 생각하고 있소. 한두 번이 아닌 고장의 수리가 이삼일이 멀다 해서 또 고장 또 고장이라면 결국 기사는 고장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 책임을 기사장이 겨야 한다면 혼명한 기사장은 자기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민망한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아오. 회사의 고충을…….”

“네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어서 고맙소.”

기사장은 ⑦ 공장장실에서 사장의 이 말을 듣고 나와 전기실 자기 의자에 앉아 침울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겉잡을 수 없었다. 기사로서의 패배감이 머리를 쳤다. 그러나 사직원을 썼다.

기사장으로서 사고 전에 고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윤리의 세계, 그는 이것만을 생각했다.

우리나라 전기 사정은 공장마다 자가 발전기를 놓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 공장의 총마력은 백 마력이 조금 넘는다. 야간 조업과 정전에 대비해서 자가 발전기를 설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막대한 금액으로 100kW의 출력 발전기를 수입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제2종 전기 기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사장의 전기 기술을 믿는다고 하며 전기실의 책임도 김명학 기사장에게 맡긴다는 것 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전기실 책임도 맡았으나 전기 에 대해서는 기계과 출신으로서의 상식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쇄 공장의 요만한 전기 시설쯤은 그의 기술로써 감당 못할 바도 아니었다.

전기 기계에 있어서 우기(雨期)라는 것은 가장 고장이 나기 쉬운 시기다. 금년따라 교과서 인쇄기(期)에 눈비가 그치지 않는 우기를 만나 습기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나 발전기와 인쇄기 모터에 고장만 났다. 하루는 단상교류(單相交流)로 인해서 인쇄기의 모터들이 우우 하는 비명을 지르며 파란 연기를 내며 모터의 코일이 타버리고 말았다. 이 수리는 즉석에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었다. 모터 수리 공장 직공들을 불러 고쳤으나 사흘이 걸렸다.

사장과 공장장은 김명학 씨만을 원망하는 것 같았다. 왜 고장이 일어날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가 했다. 그럴 때마다 동력의 삼상교류(三相交流)의 원칙을 설명하고, 공장 밖에서 합선이 된 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장이라고 변명했으나, 사장과 공장장은 구구한 그의 변명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고장이 일어난 얼마 후에, 또다시 발전기의 스리플링과 인슐레이션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지 그것이 또 타 버리고 말았다. 그는 그 날 밤을 밝혀서 수리를 완성했다. 그는 고장의 원인을 과열로 인한 고장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튿날 협소한 발전기실의 냉각을 위해서 큰 창을 두 개나 내게 했다.

한데 그 고장의 수리가 일주일도 못 되었는데 또 그것이 타 버리고 말았다. 그는 야간 종업을 싫어했다. 그날 조수에게 맡기

고 여섯 시 정각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 일어난 것이었다.

갑자기 때 아닌 모진 바람에 눈비가 뿌렸다. 그 발전기실의 통풍창으로 휘날려 들어간 눈비는 발전기를 녹인 모양이었다.

조수는 발전기실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전기실 의사에 기대어 줄고 있다가 발전기가 완전히 타 버린 후에야 당황해했다.

기사 김명학 씨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계와 살아왔으나 기계는 기계대로 고장만 냈다. 그리고 기계는 김기사장을 면직케 했다.

김명학 씨는 사직원을 쓰고 의사에서 일어나 인쇄 공장으로 들어가 제1호기에서부터 32호까지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 인쇄기의 고장은 어디에서 나고, 저 인쇄기는 어디가 약하고…… 직공들이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기계만을 응시하며 지나갔다. 제1, 제2, 제3, 제4, 제5 기계실을 빙 돋 후 출입구에 서서 인쇄기를 바라볼 때, 그는 그 인쇄기들이 움직이는 괴물처럼 보였다. 또 자기를 덮칠 것같이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강한 고독을 느꼈다. 공허한 가슴을 느꼈다. 매일같이 매만지고 바라보던 저 인쇄기들을 다시 대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차가운 고독이 절박해 오는 것일까.

이 공장의 일체가 자기에게 적의를 갖고 자기를 조소하고 자기와는 무관(無關)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자기를 공허하게 하는 것일까.

그는 사직원을 내고 모자를 들고 나오며, 그는 자기의 이 시간을 무슨 행동으로써 자기의 공허한 가슴을 메우려는 충동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한 시간이 자기를 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외출했던 김명학은 귀가 하던 중, 모두 똑같이 생긴 주택들 사이에서 자기 집을 착각해 다른 집에 들어간다. 이에 김명학은 집주인의 신고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아내와 함께 귀가한다.

눈을 감고 걸던 김명학 씨는 육십 미터쯤에서 눈을 떴다. 틀림 없는 ⑧ 자기 집 앞이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가 웃저고리를 벗어던지고 곳간으로 나가 삽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길가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뜰길에 발자국을 내어놓고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파내는 것이었다.

아내는 보다 못해,

“여보, 왜 이러세요, 왜 아래요.”

“왜 이러긴 뭐가 왜 아래.”

그는 곳간 담 밑에 가서 벽돌을 안고 왔다. 벽돌을 수없이 날라 놓고 그 발자국 구멍에 벽돌 둘씩을 가지런히 놓고 발돋움길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러한 남편이 슬프게만 보였다.

“여보, 당신, 정말 이게 뭐예요. 사람이 돌기도 한다더니 정말 돌았수?”

“돌아? 누가…… 돌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거야.”

그는 발돋움길이 되자 몇 번이고 그 발돋움길을 걸어 본다. 또 눈을 감고 걸어 본다.

아내는 남편이 가엾었다.

김명학 씨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다. 아내는 남편의 칼 든 손을 붙들고 그 칼을 뺏으려 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는 아내를 밀어버리고 현관문의 손잡이 근방을 깎아 내는 것이다. 마치 일본 빨

래관 모양 손잡이 부근을 깎아 내고 파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손잡이 부근을 쓸어 보는 것이다.

김명학 씨는 다시 길가로 나와 현관 발돌움길을, 눈을 감고 걸어가 문의 손잡이 부근을 쓸어 보고, 문을 드르륵 하고 열어 보는 것이다.

– 김광식, 「213호 주택」 –

2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활용하여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이 관찰자 입장에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내는 벽돌을 나르는 김명학의 모습을 보고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 ② 김명학은 사장과 공장장에게 기계의 고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했다.
- ③ 김명학은 발전기 고장의 원인을 과열로 판단해 발전기실의 냉각을 위해 큰 창을 내게 했다.
- ④ 회사는 막대한 금액으로 발전기를 수입하였으나, 이를 맡을 제2종 전기 기사는 채용하지 않았다.
- ⑤ 김명학은 사직원을 내고 나서 인쇄 공장에 들어갔을 때, 직공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갔다.

2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김명학이 상대를 동정하는 공간이고, ㉡은 김명학이 상대에게 동정을 받는 공간이다.
- ② ㉠은 김명학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고, ㉡은 김명학이 상대의 삶을 비판하는 공간이다.
- ③ ㉠은 김명학이 상대의 실수를 질책하는 공간이고, ㉡은 김명학이 상대에게 의문을 품게 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김명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고, ㉡은 김명학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다.
- ⑤ ㉠은 김명학이 상대의 의중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은 김명학이 상대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공간이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950년대 우리 사회는 전후(戰後) 피폐해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기계에 예속되었고, 도시의 건물은 획일화되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야기된 도시 노동자의 소외와 획일화된 도시에 대한 부적응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동에 쏟은 애정이 경시된 도시 노동자가 보이는 무력감이 획일화된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면서 현대 사회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회사의 치명적인 타격’의 책임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계와 살아왔’던 김명학에게 돌리는 사장의 말에서, 노동에 애정을 쏟은 인간의 태도가 경시되는 문제를 엿볼 수 있군.
- ② 자신이 ‘전기에 대해서는 기계과 출신으로서의 상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명학의 모습에서, 획일화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자신을 ‘면직케’ 한 ‘기계’를 보고 공장에서 나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한 시간’을 느끼는 김명학의 모습에서, 기계에 예속된 노동자가 보이는 무력감을 엿볼 수 있군.
- ④ ‘인쇄기들’이 ‘자기’를 덮칠 것 같이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강한 고독’을 느끼는 김명학의 모습에서, 도시 노동자의 소외를 엿볼 수 있군.
- ⑤ ‘돌지 않기 위해’ 만든 ‘발돌움길을 걸어 본’ 후 다시 ‘현관문의 손잡이 근방을 깎아 내’는 김명학의 모습에서, 획일화된 도시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군.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전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인 정전용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인체나 기계의 물리적 접촉 없이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이다. 이 센서는 공중 보건을 위해 엘리베이터나 출입문의 버튼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전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축전기 등으로 구성된다. 축전기는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로,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수분 유지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전극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로, 축전기 상부와 하부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 이때 얇은 투습성 소재로 제작된 상부 전극은 센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센서 외부의 물 분자가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 하부 전극은 축전기 내부 아래에서 상부 전극을 마주 보고 위치하여 있는데, 이들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이 끼워져 있다. 수분 유지 기판에는 작은 인력만으로 물 분자를 쉽게 많이 흡착할 수 있는 이황화몰리브덴 등과 같은 박막 소재가 증착되어 있다.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수분 유지 기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상하부 전극에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 두 전극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때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모이게 되면서 문자 내부의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재배열된다. 그 결과 기판 내부에서는 문자 간의 경계에 위치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되고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

표면의 한쪽은 음전하, 한쪽은 양전하가 분포된다. 이렇게 부도체의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현상을 분극이라고 한다.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해 상하부 전극에는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 있는데, 이때의 정전용량 값이 센서가 가지는 정전용량의 기본값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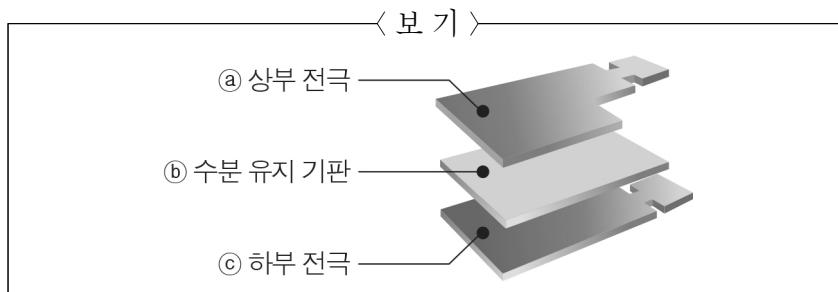
이렇게 ⑦ 전원이 공급된 상태의 정전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가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센서로 이동하면 상부 전극을 투과하여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다.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되면 물 분자 내부의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와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는 상하부 전극 사이의 전기장이 형성된 방향에 따라 분극된다. 이 때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수분 유지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은 물 분자가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되면, 수분 유지 기판에서는 이전보다 분극이 더 잘 일어난다. 이에 따라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도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정전용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감지된 정전용량이 일정값을 넘으면 전기 회로에서는 전기 신호를 통해 센서와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⑨ 이후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는 수분 유지 기판에 증착된 박막 소재와의 인력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하고, 빠르게 탈착된다. 이는 박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다. 수분 유지 기판에서 물 분자가 탈착하면 축전기 상하부 전극의 정전용량도 원래 크기를 회복하면서 센서는 또 다른 습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26. ‘정전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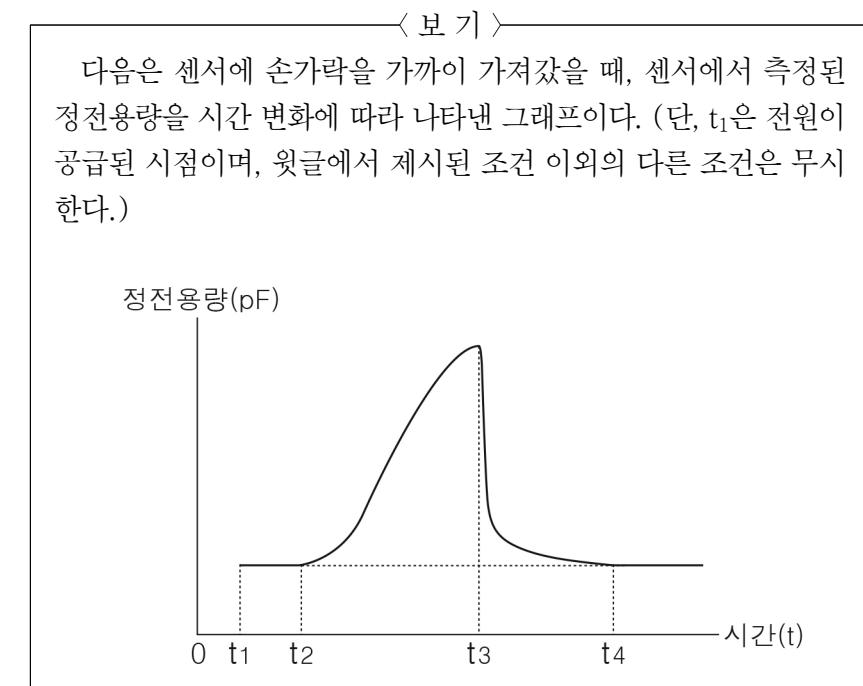
- ① 축전기를 구성하는 두 전극 중 하나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 ② 정전용량의 기본값은 부도체에 축적된 전하의 양에 반비례한다.
- ③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 변화를 이용하여 습도 변화를 감지 한다.
- ④ 감지된 정전용량이 일정값을 넘으면 센서와 연결된 기계가 작동 한다.
- ⑤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하를 전극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 한다.

27. <보기>는 축전기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기 중 물 분자는 ④를 통해서 축전기 내부로 유입된다.
- ② 전원이 공급되면 ⑥의 내부에서는 분자 간의 경계에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된다.
- ③ 전원이 공급되면 ④와 ⑤에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인다.
- ④ ④와 ⑤는, ⑥와 달리 전기가 통하는 도체이다.
- ⑤ ④와 ⑤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으로 인해 ⑥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

28. <보기>는 ⑦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t_1 과 t_3 일 때, 수분 유지 기판에서 나타나는 유전율은 다르겠군.
- ② t_1 에서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원자핵과 전자는 분자 내에서 재배열되겠군.
- ③ t_2 와 t_3 구간에서는 물 분자 내부의 산소와 수소 원자가 분극되겠군.
- ④ t_2 와 t_3 구간에서는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이 증가했겠군.
- ⑤ t_4 에서는 수분 유지 기판에 일어났던 분극이 사라졌겠군.

29. ⑨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는 투습성 소재로 제작된 상부 전극을 통해 탈착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 ②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가 탈착하면서 축전기 상하부 전극의 정전용량도 원래 용량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 ③ 수분 유지 기판의 박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서로 다른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에 영향을 주는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⑤ 수분 유지 기판의 박막 소재와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박막 소재와 물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30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법에서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매매, 상속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짓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할까?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상권과 ⑦ 지역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은 후,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에 목적과 범위 등의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두 권리는 권리를 설정한 목적과 그 특징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인공 구조물, 수목 등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토지와 지상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에 있으므로, 이 권리는 토지에 지상물이 현재는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와 지상권에 관한 계약을 맺고,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권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준속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기준의 지상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권은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필요하며, 이들을 각각 승역지와 요역지라고 한다. 이때, 두 토지는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다.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역지를 통해 요역지에 필요한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여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 가령, 요역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승역지의 일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요역지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역지의 물을 요역지로 끌어오는 것이다.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토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지역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권자 역시 해당 인공 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즉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자가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 설정자는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기준에 설정된 지역권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요역지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될 경우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그러나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3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역지의 소유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②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다.
- ③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계약의 주체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 ④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 ⑤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지상권과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다.

31. 토지 소유권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면에 한정된다.
- ②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 필요하다.
- ③ 승역지의 토지 소유권자라도 요역지의 소유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할 수 없다.
- ④ 지상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⑤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가 지역권이 설정되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라면, 제삼자에게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

32.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 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 씨와 지역권을, B 씨는 토지 X를 이용하기 위해 A 씨와 지상권을 각각 30년을 준속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023년 10월 20일 A 씨는 토지 X를 C 씨에게 매도하고, 당일에 등기를 하였다. 아래는 2024년 10월 현재 토지 X의 등기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요역지 지역권			승역지 토지 Y 목적 통행 범위 동측 50m ² 2014년 10월 20일 등기
2	지상권 설정	2015년 10월 20일 등기	2015년 10월 15일 설정 계약	목적 철근 콘크리트 건물 범위 토지 전부 지상권자 B 씨

- ① A 씨는 토지 X의 지상권 설정자로 2015년 10월 20일 이후, 토지 X의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없겠군.
- ② A 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2014년 10월 21일에는 토지 X에 통행하는 데 필요한 인공 구조물을 토지 Y의 동측 50m²에 설치할 수 있겠군.
- ③ B 씨는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로 2014년 10월 20일 이후, A 씨가 토지 Y를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Y를 이용할 수 있겠군.
- ④ B 씨는 토지 X의 지상권자로서 토지 X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이후, C 씨와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해야겠군.
- ⑤ 2023년 10월 20일 이후, C 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B 씨와의 별도 계약 없이 통행을 목적으로 토지 Y의 동측 50m²를 이용할 수 있겠군.

33. 윗글의 ⑦과 <보기>의 ①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민법에서 규정하는 ⑦ 상린권은 경계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자들이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상호 간에 토지의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토지 소유권자 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서로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권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상린권을 통해 인접한 토지의 이용을 요구하여 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

- ① ⑦은 ①과 달리 토지 소유권자 간의 원만한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② ⑦은 ①과 달리 소유한 토지에 필요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③ ①은 ⑦과 달리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다.
- ④ ⑦과 ①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 간에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⑤ ⑦과 ①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 간의 토지 이용에 대해 한쪽의 권리는 제한하는 반면, 다른 한쪽의 권리는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①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였다.
- ② 담을 높여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 ③ 회사에서 그의 직급을 과장으로 높여 주었다.
- ④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을 지나치게 높이면 위험하다.
- ⑤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춘에 병이 들어 공산에 누웠더니
한 조각 남은 꿈에 호랑나비의 날개 빌려
강한 바람에 고삐 잡혀 남포(南浦)로 내려가니
초선도(招仙島)가 어디메뇨 개암정(皆巖亭)이 여기로다
어주(漁舟)를 흘러 타고 백구(白鷗)에게 길을 물어
굽이굽이 돌아드니 수석(水石)도 맑고 곱다
시냇가에 누은 돌은 석국(石局)*처럼 벌려 있고
돌 틈에 솟은 물에 표주박 술잔이 띄워 있다
등나무를 후려잡고 석국을 디뎌 밟아
높은 창을 바삐 열고 주인 영감께 인사하니
건강하도다 뛰어난 풍채 거룩하도다 고령의 건강
의좋은 삼 형제는 아버님과 함께 놀고
색동옷 입은 아이 재롱 노래자(老萊子)*가 부러울소냐
거문고 비파와 서책은 책상 위에 둘러 있고
뛰어난 자식들은 뜰 앞에 벌려 있다

인사를 마친 후에 난간에 빗겨 앉아
원근(遠近)의 산천(山川)을 한눈에 굽어보니
동취병(東翠屏) 서취병(西翠屏)은 봉우리도 수려하고
기암괴석(奇巖怪石)은 골짜기마다 절경이로구나
일월산 한 줄기는 남록(南鹿)으로 뛰어내려
골짜기마다 용이 서려 있고 범이 웅크리고 있어
청산벽계(青山碧溪) 굽이굽이 백리(百里)에 잇닿아 있거늘
외로이 부용봉(芙蓉峰)만 무슨 일로 홀로 솟아
벌어 흘어져 갈라져서 학(鶴)의 날개 솟았는 듯
수충대(輸忠臺) 내려앉아 그윽한 터가 되니
좌우 여러 산 모든 봉(峰)이 너를 위해 생겼던가

(중략)

천지간 비밀스러운 이곳에 조상의 집 옮겨두고
효자효손이 그 아니며 조상의 유업을 비추었다
여러 경치를 다 던지고 한집에서의 모임이 더욱 좋다
십팔군선(十八群仙) 모인 곳에 남극성(南極星) 비추었다
거룩할사 우리 일문 장수한 어른이 많기도 많구나
사람마다 백발이오 얼굴마다 황구(黃壽)로다
향산구로(香山九老)* 못 보거든 낙중기영(洛中耆英)* 여기 왔도다
단청을 그려내어 이때를 밝히고자
석벽에 새겨내어 옛일을 전하게 하고자
임술주 내년이라 이날에 다시 노세
소학사(蘇學士) 옛 풍류(風流)를 손에 옮겨 붙여두고
술잔에 가득 부어 장수 기원 다시 하니
남산(南山)의 송백(松柏)은 푸르구나 축수(祝壽)를 마친 후에
군선(群仙)의 손을 잡고 초선도(招仙島)로 가려 하니
청청한 학(鶴)의 소리 깨달으니 꿈이로다

- 조성신, 「개암정가」 -

*석국: 돌 바둑판.

*노래자: 70세에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워 부모를 즐겁게 했다고 전함.

*향산구로: 당나라 백거이를 비롯한 노인 9명의 모임.

*낙중기영: 송나라 낙양 땅에서 부필, 사마광 등 13인의 노인들 모임.

(나)

나의 벗 이군 계우는 어릴 적에 처가를 따라 산 남쪽 연곡리(燕谷里)에 살았다. 얼마 뒤에 그는 또 집 곁에 책을 보관하고 손님을 영접하기 위한 집을 짓고 ‘청청각(淸淸閣)’이라 이름하였다. ⑦ 이군의 청청각이 완성된 뒤로 산골 백성과 들녘 노인들이 모두들 와서 보고는 경이로워하였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모두 돌 아보느라 머뭇거리며 신선의 거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 위에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 오다가 근자에 한번 가서 이군을 따라 며칠 동안 누각의 경관을 구경하였는데, 그런 뒤에 더더욱 이름이 그 집에 걸 맞음을 알게 되었다. ⑧ 청청각은 모두 아홉 칸으로, 마루는 시원하고 방은 따뜻하며 둘레에 난간이 쳐져 있고, 창과 출입문은 밝고 깨끗하며 왕골 자리가 시원하게 깔려 있다. 흐르는 물이 당 아래에 감아 돌고 기암괴석이 처마 끝자락에 우뚝 솟아 있으며, 맑은 물이 고요하고 시원하며 해묵은 벼드나무가 무성하다. 이리하여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이곳의 바람은 시원하다.

이군은 각건(角巾)에 도포를 입고 그 사이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날마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향불을 피워 놓고는 글을 읽고 시를 읊조리다가, 피로해지면 지팡이를 끌고 천천히 거닐면서 꽃에 물을 주고 나무를 심으며 위로는 산을 바라보고 아래로는 샘

물에 빨을 셋곤 하니, 종일토록 한가롭고 담박하여 세속의 잡다한 일이 조금도 없다. ⑤ 이곳의 환경과 이군의 일이 모두 맑다고 할 수 있으니, 누각이 '청청각'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환경은 외물(外物)이고 일은 거친 자취이다. 환경을 따르면 외면만 탐하고 내면은 잊게 되며 일에 얹매이면 거친 것만 얻고 정밀한 것은 잊게 되니, 이로써 '청'은 되지만 '청'의 지극함은 아니다.

⑥ 내가 보건대, 이군은 사람됨이 온화하고 담박하여 세속적인 이익에 무관심하다. 비단옷을 입고 옥을 차는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용모는 들판의 학과 같고 그의 기운은 깊은 숲 속의 난초와 같으니, 그는 실로 탁한 세상의 맑은 선비이다. 만일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도의(道義)로 자신을 연마하여, 학(學)을 물어 밝고 활달한 근원에 도달하고 본심을 지켜 텅 비고 밝은 본체를 길러서, 투명한 유리병이나 맑은 가을달과 같았던 연평*처럼 외물의 누를 깨끗이 씻어 내어 가슴속을 해맑게 할 수 있다면, 이는 천하에서 가장 완전한 맑음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누각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 이군이 이 누각의 이름을 정한 것은 그 뜻이 분명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 뜻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⑦ 그러나 '청(淸)'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굳이 그 글자를 중복한 이유는 스스로 재삼 다짐하는 깊은 뜻을 나타낸 것일 것이다.

- 김창협, 「청청각기」 -

*연평(延平): 주희가 성리학을 완성하는 데 큰 가르침을 준 사람.

3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문답의 방식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36. <보기>는 (가)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①~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②	③	④	⑤
입몽	개암정 방문	경관 감상	개암정 모임	각몽

- ① ①: 공간에 누워 꾼 꿈속에서 호랑나비의 날개를 빌려 개암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②: 개암정에서 주인 영감을 만나고 그의 풍채와 건강을 칭송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③: 원근의 산천을 한눈에 굽어보며 청산벽계가 백리에 이닿아 있는 산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④: 조상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한집에 모인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⑤: 군선의 손을 잡고 찾아간 초선도에서 들리는 학의 소리로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37.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나'가 청청각을 방문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 ② ②: '나'가 누각을 직접 본 경험을 바탕으로 청청각의 구조와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③ ③: '나'가 누각의 환경과 이군의 일을 비교하며 청청각의 이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④: '나'가 이군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주변 평판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⑤ ⑤: '나'가 이군이 누각을 청청각이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시대 사대부 작품에서 자연은 풍류를 즐기며 미적 가치를 인식하는 공간이자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가)의 자연은 화자가 흥취를 느끼는 공간이자 향촌 사족의 가문 의식과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념 공간으로, (나)의 자연은 속세와 단절된 사대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격 수양을 실천하는 은일 공간으로 나타난다.

- ① (가)의 '돌 틈에 솟은 물에 표주박 술잔이 띄워 있는 모습에서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의 '봉우리'들이 '수려하고 기암괴석'이 '절경이로구나'라고 감탄하는 것에서 미적 가치를 인식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천천히 거닐'며 '위로는 산을 바라보고 아래로는 샘물에 빨을 씻'으며 '세속의 잡다한 일이 조금도 없'는 '이군'의 모습에서 사대부가 은일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의 '우리 일문'에 '장수한 어른이 많기도 많'다면 '거룩'하다고 감탄하는 것에서 가문 의식을 실현하는, (나)의 '내면은 잊'고 '텅 비고 밝은 본체'를 기르는 '이군'의 모습에서 인격 수양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엿볼 수 있군.
- ⑤ (가)의 '삼 형제는 아버님과 함께 놀고' '뛰어난 자식들은 뜰 앞에 벌려 있'는 것에서, (나)의 '외물의 누'를 '씻어 내어 가슴속을 해맑게' 하면 '이 누각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에서 이상적인 삶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엿볼 수 있군.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태종 황제에게 원한을 품은 용왕으로 인해 태종 황제는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된다. 신하 위징은 저승의 지인 최 판관에게 태종 황제를 도와 달라 부탁한다.

십전 명왕이 태종 황제를 향하여 말하기를,
“폐하가 경하 용왕으로 빌미되어 인간의 귀하신 몸이 더러운 곳에 옥되어 몸소 오시니 오랫동안 머무시는 것이 불감당(不堪當)하옵니다.”

태종 황제께서 사양하여 말하기를,
“십전 명왕의 덕으로 명백히 처단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기 측량없사오며, 또한 명부(冥府)를 구경하오니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황공하여이다.”

염라대왕이 **최 판관**에게 명하기를,
“태종 황제의 수한(壽限)이 얼마 되시는가? 생사부(生死簿)를 가져오라.”

하였다.
최 판관이 명령을 듣고 생사부가 쌓인 곳에 가서 책을 펴 보니 인간 세상의 세민 황제께서 즉위한 후 정관 13년에 들어올 해이매 다시 살아날 도리가 없었다. 마음에 민망하여 책을 이대로 염라대왕께 드리면 위정의 부탁을 저버릴 것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난처하여 한참 동안 주저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여 열 십자 위에 두 획을 더 그으니 완연하게 23년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십전 명왕께 드리니 십전 명왕이 책을 받아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태종 황제께서 10년을 지레 일찍 들어와 계시니 바빠 도로 인세에 나가심을 청하라.”

하고, 태종 황제를 향하여 말하기를,
“10년 후에 다시 뵐오려니와 인간 세계에 나가셔서 지부에 무슨 정표(情表)를 하실 것을 바라나이다.”

태종 황제께서 가라사대,
“지부에서 무엇을 쓰시려 하시나이까? 만일 지부에 없는 것을 구하시면 구하시는 대로 보내오리다.”
십전 명왕이 말하기를,
“다른 것은 다 있으나 지부의 토질이 달라서 단지 수박 한 가지가 없으니, 수박을 보내 주시기 바라나이다.”

(중략)

최 판관이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고 놀라 말하기를,
“폐하께서 이제는 인간 세상에 못 나가게 되었나이다.”

태종 황제께서 놀라서 묻기를,
“어인 연고로 그러하뇨?”

최 판관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하를 다투실 때에 저 사람들이 전장에서 무죄하게 죽었는고로 원한을 품었다가 원수를 갚으려고 들어오니, 이 일은 진실로 부처라도 구하지 못할까 하나이다.”

태종 황제께서 실색할 정도로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대는 아무쪼록 나갈 수 있는 계교를 가르치라.”

최 판관이 말하기를,
“신의 힘이 부족함이 아니라 천만 가지로 생각하여도 그럴듯한 계교가 없나이다.”

하고 차탄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그 귀졸들이 일시에 달려들려 하거늘 자세히 보니 어떤 귀신은 목도 없고 손도 없으며 어떤 귀신은 창에도 찔렸으며 어떤 귀신은 화살도 맞았었다. 그 귀졸

들이 태종 황제를 에워 싸며 말하기를,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고 천자가 되었으니 다행이거니와 우리는 무슨 죄로 이런 몸이 되어 주인 없는 외로운 혼으로서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습기가 찰 때에 거리로 다니되 원통함을 알아 줄 사람이 없고 서러운 말을 고할 곳이 없으니 태종 황제를 죽여 원한을 풀리라.”

하고 사방으로 에워싸니, 태종 황제께서 정신을 잃고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최 판관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계교를 내어 귀신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잠깐 멈추고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태종 황제께 너희들의 사연을 고하여 너희들을 구처할 것이니 아직 마음을 놓고 있으라.”

하니 귀신들이 물러섰다. 최 판관이 가만히 태종 황제께 아뢰기를, “저 외로운 혼의 근심을 면하고자 하실진대 ⑦ 폐하의 창고가 이곳에 있으니 이제 친히 가옵셔서 돈과 곡식을 내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즉시 다 물러나리이다.”

하고 창고를 가리켰다. 태종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며 창고에 찾아가 보니 집은 넓고 크나 그 가운데에 쌓인 것이 없어 텅 비어 있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이길래 남의 빈 창고에 와 왔다 갔다 하느뇨?”

태종 황제께서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세민 황제로다.”

그 창고지기가 이 말을 듣고 태종 황제를 향하여 무수히 원망하여 말하기를,

[A] “사람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준 것이 있으면 이 창고에 쌓였다가 죽어서 저승에 돌아오면 먹고 살건마는, 황제는 세상에 처하여 천자의 부귀함으로도 남에게 준 것이 없기로 이런 너른 창고에 한낱의 곡식과 일푼의 금전이 없으니 나에게 무엇을 먹고 있으라 하느뇨? 만승 천자가 어찌 이러하리오?”

하고 문을 열었다. 태종 황제께서 마음이 창피하여 들어가 보니 한 푼의 돈도 없고 다만 짚 한 뜻이 있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에게 묻기를,

“저 한 뜻 짚은 어찌 있느뇨?”

그 사람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아직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손식이란 사람의 처가 해산할 때에 태거적으로 주었기로 받아 두었습니다.”

하였다. 태종 황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창피하여 돌아오니, 최 판관이 묻기를,

“창고 속에서 돈과 쌀을 얼마나 가져 오시나이까?”

태종 황제께서 부끄러워하는 빛으로 답하되,

“빈 창고뿐이오. 돈과 곡식이 없더이다.”

하시니, 최 판관이 이 말을 듣고 난처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생각하고 말하기를,

“황제의 도성 30리 밖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장이요 이름은 상으로서, 삼국 때의 명장 연익장(燕翼將) 익덕(翼德)의 후예입니다. 나이가 늙고 집이 가난하나 평생에 적선하기를 일삼아 지아비는 신을 삼아 남을 구원하는 까닭으로 금은과 돈을 이세 곳의 창고에 쌓고 노적(露積)하였사오니, 그 사람의 금은을 꾸어 저 외로운 혼에게 나누어 주고 인간 세상에 나가 도로 갈으소서.”

태종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여 최 판관과 더불어 ⑧ 장상의 창고에 가서 지키는 사람에게 청하고, 창고 하나에 쌓은 금을 꾸어

가지고 여러 외로운 혼을 불러 위로하기를,
 ┌ “너희 혼령을 위로하고자 하여 금을 꾸어다가 너희에게 나
 [B] 누어 주나니 비록 약소하나 이를 나누어 가지고 물러나라.
 ┌ └ 십전 명부에서 너희들의 원한이 가득 찬음을 알면 내가 다
 └ 시 세상으로 인도하여 가게 하리라.”
 귀졸들이 서로 돌아보고 말하기를,
 “세민은 인간 세계의 황제로서 지극히 존귀하고 하물며 우리
 의 주장 판관이 명하시니 어찌 받들어 행하지 않으리오?”
 하고 물러섰다.

— 작자 미상, 「당태종전」 —

39. 윗글의 최 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종을 위해 자신이 맡은 직책의 권위를 이용하여 계략을 행하고 있다.
- ② 태종에게 자신이 베푼 선의의 대가로 지부에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실색할 정도로 크게 놀란 태종의 명령을 해결할 계교가 없어 턱식하고 있다.
- ④ 염라대왕의 명령을 수행하다 위정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계책을 떠올리고 있다.
- ⑤ 태종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그 내용을 태종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4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의 사실을 언급하며 상대를 조종하고 있고, [B]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를 조롱하고 있다.
- ② [A]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대를 독려하고 있고, [B]는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 ③ [A]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를 힐책하고 있고, [B]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내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A]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를 도우려 하고 있고, [B]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며 상대를 억압하고 있다.
- ⑤ [A]는 갈등의 원인을 밝히며 상대를 배려하고 있고, [B]는 갈등으로 인해 생길 고통을 예측하며 상대를 독촉하고 있다.

4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 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장소이고, ㉡은 인물 간의 오해가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② ㉠은 인물이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장소이고, ㉡은 인물이 상대의 호의를 거절하는 장소이다.
- ③ ㉠은 인물이 상대를 의심하게 되는 장소이고, ㉡은 인물이 상대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장소이다.
- ④ ㉠은 인물이 예상하지 못한 타인을 만나는 장소이고, ㉡은 인물이 기대했던 타인을 만나는 장소이다.
- ⑤ ㉠은 인물이 자신의 과거 행적을 환기하는 장소이고, ㉡은 인물이 타인의 과거 행적의 결과를 확인하는 장소이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소설에서 저승은 생전에 지은 업보에 대한 상벌이나 환생(還生) 등에 관여하는 사후 세계로, 저승과 이승 사이의 단절과 연결이라는 이중성을 통해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한다. 「당태종전」의 저승에서는 이승에서 권력자가 누렸던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지지만, 이승에서 지은 업보로 빈부가 전도된다. 이러한 저승에서 권력자는 자신의 업보로 인해 위기를 겪지만,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자의 업보를 통해 이를 모면하고, 끊어졌던 환생의 가능성을 되찾게 된다.

- ① 십전 명왕과 최 판관이 명부에 온 태종을 폐하라 지칭하는 모습으로 보아, 권력자의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군.
- ② 십전 명왕이 태종의 생사부를 보고 인세에 바빠 도로 나가심을 청하라고 한 말을 보아, 저승이 환생에 관여하는 사후 세계임을 알 수 있군.
- ③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드는 귀졸들로 인해 정신을 잃는 태종의 모습으로 보아, 이승의 권력자가 자신의 업보로 인해 저승에서 위기를 겪게 됨을 알 수 있군.
- ④ 태종이 최 판관이 가리켜 들어간 집 안에서 짚 한 끗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권력자가 끊어졌던 환생의 가능성을 되찾음을 알 수 있군.
- ⑤ 태종이 최 판관과 함께 가서 장상의 금을 꾸어 여러 혼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아,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자의 업보를 통해 권력자가 저승에서의 위기를 모면함을 알 수 있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월이 돌아와 다사로운 봄볕에
목련이 꽃망울지기 시작하면
내 슬픔은 비롯하나보다.
경운동집 앞마당에
목련이 ⑦ 가지마다 꽃등을 달면
병석의 어머님은 방문을 열고
사월 팔일이 온 것 같다고 웃고 계셨다.

옛날을 꽂피우던
늙은 나무는 죽은 지 오래이고
남은 가지가 자라난 지 스물 두 해
오늘은 ⑧ 아침부터 바람이 불고
연약한 가지에 매어달린 목련은
떠나가는 몸짓을 한다.

목련이 지면 어머님은 떠나가시고
삼백 예순 날이 또 지나가겠지
아 새봄이 와서
가지마다 새싹이 움틀 때까지
나는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

– 김광균, 「목련나무 옆에서」 –

(나)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
힐벗은 영혼들도 귀의할 안식이 있듯
상처뿐인 삶들도 돌아가 잠들 그리운 집은 있네
천상의 사랑은 ⑨ 이미 빗장을 풀고 달아나버려
보리밭 위로 부는 바람에도 나는 어찌할 수 없네
어제는 ⑩ 들판에서 잠자고 오늘은 길 위에서 눈뜨는
노숙의 세월인들 꿈이 없으랴
그 꿈 속의 비단길인들 끝이 없으랴
나는 대상에서 떨어져나온 외로운 쌍봉낙타
취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도시의 불사막을
지글거리는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네
⑪ 또 그렇게 가다보면 세상의 마지막 저녁과
두고온 고향의 바닷별과 조우하려니
입 안에 풍화하는 모래가 씹히고
모래언덕 위로 붉은 달이 떠오를 때
별에다 귀를 가져다 대면, 들리네
헛속에서 잉잉거리는 세상의 첫소리와
첫사랑 현옹수* 떨리는 소리까지 들리네
착한 눈동자 선한 귀로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게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

– 정일근,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라」 –

*현옹수: 목구멍의 안쪽 뒤 끝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민 동그스름한 살
목젖.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4. ⑦ ~ 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목련이 가지에 낱낱이 피어 있는 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② ⑧: 화자가 인식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⑨: 천상의 사랑이 달아나버린 것이 지나간 일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⑩: 잠자는 장소를 밝혀 노숙의 세월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⑪: 세상의 마지막 저녁을 거듭해서 겪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시적 상상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가)에서 화자는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에서 부재하는 혈육을 회상하고, 자신과 혈육을 자연물과 동일시하는 상상력을 통해 혈육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독함을 느끼며 고향과 이어지는 상상력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며 현실을 인내하고 있다.

- ① (가)의 ‘병석의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웃고 계셨다’에서 화자의 혈육에 대한 과거 경험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나)의 ‘나는 대상에서 떨어져나온 외로운 쌍봉낙타’에서 고독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의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에서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의 ‘사월이 돌아’와 ‘삼백 예순 날이 또 지나가겠지’에서 자연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의 ‘도시의 불사막’을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네’에서 부정적 현실을 인내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목련이 지면 어머님은 떠나가시고’와 ‘나는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에서 자연물을 통해 부재하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나)의 ‘두고온 고향의 바닷별과 조우하려니’에서 고향과 이어지는 화자의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